

모 두 발 언

2019. 12. 5.

금 융 위 원 회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각 연구원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협의회에서는

- ①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
- ②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 ②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하게 된 공통적인 배경은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lower for longer)되면서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a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는 점입니다.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기 위하여
때로는 공격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기가 길고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차츰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리스크가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금융회사의 투자 경향,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면서
리스크가 집중되는 영역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2.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

우선,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부동산PF 익스포저 현황과 잠재 리스크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금융유관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도
부동산PF 익스포저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
여러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발굴·제안해 주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이 함께
「부동산PF 익스포저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부동산PF 익스포저는
비은행권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맞물려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에 반해, 부동산PF 익스포저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한 수준까지 구축되지는 않았다고 평가됩니다.

예컨대, 증권업계와 여전업계에서는
부동산PF 채무보증을
자기자본 규모에 비해 큰 폭으로 늘려 온 사례도 있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규율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안을 계기로,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개선*하여
PF 익스포저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제어해 나가겠습니다.

* ①채무보증에 대한 한도규제 도입, ②비대칭적으로 완화된 자본규제 조정,
③불합리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삭제, ④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등

또한,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자산의
양적·질적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분석틀(framework)을 개발하여
위기 시나리오에 따라 테스트도 실시하겠습니다.

그 결과, 복원력이나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금융업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방안으로 다소 수익이 줄거나,
자산 확대에 제약을 받는 일부 금융업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방안은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건전성 확보라는
금융권 전체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회사들이 변경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선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3.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두 번째로,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①레버리지론, ②하이일드 채권 등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①레버리지론 : 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②하이일드 채권 : 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

투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19년6월말 기준 7.6조원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천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융회사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상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 규모는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글로벌 시장 여건이 변동할 경우
기업부채 자산의 부실이 확대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도 위험이 전이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4.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

다음으로,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IMF는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GFSR)를 통해 그동안 채권형펀드가 수익률 추구 차원에서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채권 편입을 확대해 오면서, 전반적인 유동성이 부족해졌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IMF 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19.10월) : 운용자산 10억불 이상 채권형 펀드(1,760개)중 1/6이 월단위 자본유출 급증시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

FSB, IOSCO 등 국제금융기구도 펀드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유동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로서는 국·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급격하게 시스템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19.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8조원이며, 이 중 국·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6%를 차지

그러나, MMF를 제외한 여타 펀드의 경우,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없고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및 운용구조,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20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채권형펀드의 유동성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5. 맺음말

오늘 논의하는 투자 자산들은
확정 금리를 제공하는 “채무증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채무증권은 평상시에는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의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고
포트폴리오의 변동성도 낮습니다.

그러나, 시장 여건이 악화될 조짐을 보일 경우,
채무증권 투자자들은 신용위험에 민감해지고
정보에 과민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조정이 오버슈팅되면서
시장 불안의 도화선(trigger)과 증폭기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방트 홈스트롬(Bengt Holmstrom, '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기제는 채무증권”

고위험이 내재된 고수익 채무증권 투자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건전성 장치를 보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안주하지 않고,
유관기관이 함께 상황을 진단하면서
잠재위험에 대비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시장 위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적시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장치로 자리매김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